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2학기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2)

대학		학 과 (학부·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험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십시오.
- 답안을 작성할 때 문제 번호를 줄 맨 앞에 쓰고 바로 이어 답을 쓰십시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쓰십시오. (숫자나 수식, 표 등은 제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 답안 작성 시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2009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2학기 논술 문제지(인문계열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통:** 로베스피에르, 자네의 그 알량한 미덕 말이네만, 그래, 자네 개인적으로 돈을 챙겨 넣은 적도 없고, 빚을 진 일도 없지. 그리고 자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여자와 외도한 적도 없고, 항상 의복을 단정하게 걸친 채 술에 취한 적이라고는 없지. 로베스피에르, 사회 규범을 좇는 자네 정말 무지무지하게 정직하고 도덕적인 인간이야.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도덕의 탈을 쓰고 천하를 활보하지는 못하겠네. 그건 나보다 남을 나쁘게 보겠다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해. 자네 마음 속에서 이따금 나직한 소리로 “넌 자신을 속이고 있어, 넌 자신을 속이고 있던 말이야”하고 속삭여대지 않던가!

로베스피에르: 내 양심은 깨끗해.

당통: 양심이란 원숭이가 앞에다 놓고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는 거울이지. 누구나 자기 재량껏 치장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즐거움도 누린다네. 마땅히 그렇게 할 만한 일이지. 그 누구든 다른 어떤 자가 자기의 이러한 기쁨에 찬물을 끼얹으면 반항하게 마련이라구.

로베스피에르: 자네 세상의 규범과 도덕을 부인하는 건가?

당통: 그렇다네. 나는 규범과 도덕을 부인하지. 이 세상에는 쾌락주의자만 존재할 뿐이네. 차이가 있다면 천하고 상스러운 쾌락주의자인가 아니면 세련된 쾌락주의자인가 하는 점이지. 나에겐 이 점이 인간들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라네. 누구나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행동한단 말일세. 그렇지 않은가, 청렴한 친구여? 자네의 발뒤꿈치를 이렇게 밟다니 내가 좀 지나쳤나?

로베스피에르: 당통,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때로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게.

(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에게는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본성, 즉, 사회성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회 생활을 하면서 반사회적인 이기심이나 이해 관계의 차이로 서로 다투게 된다. 이러한 다툼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 인간 사회는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다.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여 사회 공동 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려고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마련된 것이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은 선하거나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위의 법칙이다. 이러한 규범을 잘 지

키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하여 사회 규범을 정하므로, 그 규범을 보면 그 사회와 시대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규범은 문화와 환경의 산물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성과 상대성을 갖게 된다. **(중략)**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규범들은 심지어 몇 십 년 전만해도 당시의 공유된 규범과는 다른 것들이었다. 우리가 인정하는 가치들은 많은 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온 것들이었다.

(다) 서기 **533**년 오를레앙 공의회는 공식적으로, 자살한 사람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고, 서기 **693**년 톨레도 공의회는 자살을 기도한 사람을 파문한다고 공표했다. 이러한 자살에 대한 불관용은 **13**세기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 정점에 달했는데 그는 자살이 신법(神法)뿐 아니라 자연법에도 어긋나는 가장 위험한 죄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삼분의 일을 쓸어 가버린 끔찍했던 **14**세기 이후, 즉, 르네상스 시기에는 자살에 대한 생각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었고, 누구에게나 다가왔다. 영국의 헨리 **8**세에 반대하여 가톨릭 교회를 위해 순교한 유명한 성인 토마스 모어는 **1516**년 간행된 ‘유토피아’에서 말기 환자에게 자발적인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모어가 상상한 이상(理想)사회에서 안락사는 고통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진지한 사상가와 의사들 사이에서 계속 설득력을 유지했다. **1794**년 의사인 패러디즈는 ‘안락사에 관한 연설’에서 치유할 수 없는, 고통 받는 환자에게 품위 있는 죽음을 권하고 있다.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높아갔다. 유럽과 미국에 **100**년 전부터 안락사 문제를 다룬 책들과 안락사 협회가 존재했으며, 법안의 초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최근 서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미국에서 있었던 여론 조사에서 “당신은 견딜 수 없는 경우의 자발적인 안락사를 받아들일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되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예”라는 대답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아직까지 안락사는 합법화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네 번이나 있었지만 매번 근소한 차이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안락사라는 개념이 유용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16**세기 초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성애가 종교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범죄로까지 낙인이 찍힌 셈이다. **17**세기 중엽에는 혼자 사는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언도받기도 하였으며, 그 증거로 성적(性

的) 이상행동이라는 죄명이 악용되기도 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동성애는 사악한 원죄의 산물이나 범죄적 성향의 표현으로 보는 대신에 정신적 요인에서 비롯된 성적 이탈행위, 즉, 일종의 정신병으로 규정되었다. 나치 독일에서도 많은 동성애자들이 처형되었는데, 그 이유는 동성애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공리주의를 창안한 윤리학자 벤담은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가혹하게 취급되는 것을 보고 오랫동안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쾌락과 유용성의 원리에서 볼 경우에 동성애는 전혀 그럴만한 요소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벤담은 당시 동성애가 성폭력과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비난하였던 블랙스톤의 입장에 반대하였다. 그는 동성애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적 욕구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억압이야말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근년에는 서구 사회에서 동성애 부부에게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성애자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추세에 있다. 1970년대 이래 미국 정신의학회는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미국 연방정부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1989년 덴마크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초로 통과시켰다. 또한 영국의 대법원은 1999년 동성커플 간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이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 예방에 목적을 두고 2000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성에 대해 미성숙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성(理性)적 가치 판단도 미흡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이 시기의 건전한 신체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성범죄로 인해 형성된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은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이중 처벌, 형평성 원칙의 위배,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 적법 절차의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많은 국가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바) 임계점은 똑같이 생긴 두 계곡을 가진 언덕 위에 공이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공은 두 계곡 중의 하나로 굴러 내려가야만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선택은 요동(搖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은 무작위적인 요동에 놀라울 정도로 민감해진다. 아주 작은 우연에 의한 선호가 균형을 깨뜨린다. 그런 불안정성은 임계 상태를 언제나 이쪽 아니면 저쪽 계곡으로 굴러 내려갈 위험이 있는 매우 불확실한 상태로 만든다. 물질을 임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모든 방향에서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바늘을 세우려는 것과 같다. 기본적인 특이성은 요동에 대한 극단적인 민감성 때문에 나타난다.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순식간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브룩헤븐 연구진은 한 더미의 모래를 이용한 직관적인 모델을 개발했다. 테이블 위에 모래를 한 알씩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자. 서서히 무더기가 만들어져서 작은 모래산이 된다. 경사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꼭대기에 떨어진 모래 한 알이 사태를 일으킨다.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래알들이 서로 간의 마찰에 의해서 경사면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정지해 있다. 어떤 각도가 되면 마찰이 더 이상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사태가 시작된다. 한 알의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모래알과 충돌하면서 일종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모래알의 움직임이 충돌에 의해서 짝을 짓는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십여 개의 모래알이 굴러 내리고 나면 곧 힘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경사면이 사라질 정도로 계속되는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모래알을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의 더미에 떨어뜨릴 때 그것이 몇 알의 모래알만을 움직이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모래 더미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사태를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징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큰 사태는 작은 사태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모든 규모의 사태가 일어날 수는 있다. 모래 더미는 임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태는 모래 더미의 긴장을 해소시켜서 경사각을 줄이고 안정성을 되찾아준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사태는 단순히 모래 더미를 이전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려놓기 때문에 모래알이 더해지면 다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의 모래 더미가 아니라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임계 상태는 끊임없이 복원된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다), (라), (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되,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 [30점, 500~550자 사이 (답안지 22줄 이내)]

[문제 2] 제시문 (바)에 제시된 자연 현상과 제시문 (다), (라)에 나타난 사회 현상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제시문 (바)를 근거로 제시문 (다), (라)에 나타난 사회 현상이 인식과 규범의 변화 경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40점, 500~550자 사이 (답안지 22줄 이내)]

[문제 3] 다음에 제시된 <표 1>은 A국과 B국의 보건·사회 관련 가상 자료이다.

<표 1> A국과 B국의 보건·사회 관련 가상 자료

A국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구분(단위)					
	전체 인구(만명)	5000	6000	6000	5600	6000
	AIDS 발병 환자(천명)	5	9	12	14	18
	빈곤 인구(만명)	150	120	240	168	180
	동성애자(천명)	220	276	288	280	312
	GDP 대비 공공 의료비(%)*	11	10.5	10.7	10.7	10.8
B국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구분(단위)					
	전체 인구(만명)	800	1000	1200	1300	1400
	AIDS 발병 환자(천명)	4	6	8.4	7.8	7
	빈곤 인구(만명)	120	160	204	208	210
	동성애자(천명)	56	80	60	78	70
	GDP 대비 공공 의료비(%)	5.4	4.9	4.4	4.9	5.4

* GDP 중 공공 부문 의료비 지출 총액 비율

[3-1] <표 1>을 참고하여, GDP 대비 공공 의료비와 빈곤율의 변화 추이의 관계를, A국과 B국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답안지 10줄 이내]

[3-2] <표 1>을 활용하여, A국과 B국의 전체 인구 대비 AIDS 발병 환자 비율 추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고,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답안지 10줄 이내]